

임마누엘

Immanuel

마태복음 1:18-2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2월 2일 설교

¹⁸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¹⁹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²⁰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²¹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²²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²³‘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²⁴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 왔으나 ²⁵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랜 예언

오래 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 7:1-25). 북 왕국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인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때 유다 왕은 아하스였는데 왕과 온 백성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왕이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혹 기억하십니까? 일 년 전에 살폈습니다만, 우선 군사를 보내 수도 예루살렘의 물길을 방어하였고 그와 더불어 멀리 있는 강대국 아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가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는 타다 남은 부지깥이에 지나지 않으니 조금도 겁낼 것 없다’ 하셨습니다. 나무가 불에 탔으니 아무 힘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두 나라 왕이 절대 유다를 이길 수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절대 설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들이 믿든 안 믿든 두 나라가 유다를 정복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는 못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데 계속 벌벌 떨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하나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걸 보증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 요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대신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꾸짖으면서 왕이 그렇게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징조였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이 징조는 일단 아하스 시대를 위해 주신 징조였습니다. 처녀라 했는데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처녀하고 똑같습니다.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도 처녀고 그냥 젊은 여자도 처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니까 그 무렵 젊은 여자 하나가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아이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의 참 뜻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뜻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말씀이 아하스 시대가 아닌 마리아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칠백 년이나 지난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징조였습니다. 표적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걸 보증해 주는 증거였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주신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지만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요청을 받은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이 두 나라를 아

에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아시리아를 부른 아하스가 잘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시리아를 믿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아시리아가 유다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행히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런데 이 징조는 한 번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아하스 시대에 베푸신 그 정치, 군사적인 구원은 먼 훗날 주실 참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구원은 죄를 씻음 받고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는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이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같이 살지만 얹지 결혼과 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배가 불러옵니다. 요셉이 볼 때 백 퍼센트 간음이지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는 선에서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임신이 된 이유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이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했습니다. 왜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에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하스와 달리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예수라 지은 것은 요셉의 믿음이면서 또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그럼 아기 예수의 탄생이 칠백 년 전에 주신 예언의 성취라는 걸 마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겠지요? 마태를 비롯한 예수님의 열 두 사도와 처음 예수를 믿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을 배웠습니다. 오래 전 이사야가 한 예언이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는 것도 당연히 예수께서 가르치셨겠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27). 그 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셔서도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눅 24:44-45). 이 때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집중 가르치셨겠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평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도 성경을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는 칠백 년 전 예언을 하면서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지 아니면 그냥 젊은 여자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이를 낳은 여자는 동정녀일 수가 없으니 오히려 잘 됐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통해 동정녀를 가리킨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 제자들이 예수께 배웠던 내용을 성령이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요 14:26).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가끔 듣는 이야기지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를 처녀라 한다면 임신을 한 이상 이미 처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말 그대로 처녀가,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한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령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남녀가 관계를 가져야 일어날 수 있는 임신이라는 현상을 그런 관계가 없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기적입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애쓰는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지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에 새 생명을 만드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1:31-35). 하나님이 처음 에덴동산에서 약속하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사람 여자의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말씀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육신 곧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요한이 이어 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4, 18). 아버지 품에 계시던 아들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실 때는 태어날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임마누엘의 뜻을 친절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이상한 문자가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첫 두 글자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오래 전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면서 주신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뜻 정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칠백 년 뒤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라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인간 세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죄의 삯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과 답답함과 억울함에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 옛날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합니다. 안 믿으면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을 얻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싸고 계셔서 오래 전 유다 백성을 외부의 침략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지켜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한 마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오래 전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이달 이십오 일에 있을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또한 하늘로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곧 다시 오겠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 죄를 씻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날을 또한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하는 상입니다. 이 자리에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취된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이 모자라 별별 땀입니다. 사는 즐거움도 없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다른 것, 사람이든 돈이든 힘이든, 그런 걸 의지하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불신앙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쓰러지지 말고 굳세게 서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기념하면서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또 이 성찬을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수경 목사)